

한강 '소년이 온다' 속 '옛 광주적십자병원' 11년만에 개방

5·18민주화운동 45주년 맞아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일시 공개 오월해설사가 관람객에 무료 해설... 전시·체험형 콘텐츠 등 진행

광주시가 국가 주도 역사 클러스터(Cluster)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지 11호)이 11년만에 시민들에게 문을 연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인 옛 적십자병원이 지난 2014년에 폐쇄된 이후 처음으로 일시 개방을 하는 것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5·18사적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일시 개방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 헌혈이 이뤄진 상징적인 5·18사적지인 옛 적십자 병원은 광주시가 지난 2020년 7월 매입했다.

당초 소유자였던 서남대가 파산하자 민간매입에 따른 훼손 우려가 나와 시가 매입한 것이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서 본관과 부속건축물의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

사됐다.

시는 구조와 내진에 대한 보수·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계속 폐쇄한 상태로 보존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5·18사적지라는 역사성을 시민과 방문객에게 널리 알릴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을 위해 안전한 구간 위주로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 구간은 전면 주차장, 응급실, 1층 복도, 중앙현관, 뒷마당 등이며,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후 1시30분 이후에는 5·18기념재단의 '오월해설사'가 상주해 관람객들에게 무료 해설도 들을 수 있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지 중 하나인 점을 부각, 광주관광공사의 특화관광상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품인 '소년의 길'과 5·18기념재단의 '오월길' 해설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적십자병원 개방 기념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

고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가량 전시회도 열린다.

5·18 당시 헌혈 장면과 부상자 치료 모습을 담은

사진, 병원의 역사, 관계자 증언이 담긴 영상자료 등이 전시된다. 역사적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체험형 콘텐츠도 진행된다.

광주시는 개방행사 종료 후 관람객 반응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유휴공간의 지속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단체·전문가·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련 건물과 부지 전체에 대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사적지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전시가 기억과 공감, 참여를 이끄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적십자병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 등을 조성해 보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본설계 용역비(17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비눗방울 잡자" 어린이날을 일주일여 앞둔 2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야외활동 시간을 갖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해상풍력 '지반조사 기술 개발' 공모 선정

2029년까지 189억원 확보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참여

전남도는 29일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에 앞서 지반조사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지반조사 성능기준 표준화 및 기반기술 개발' 공모사업에 참여,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현대건설산업, 남진건설 등 민간기업을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총 189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양의 강한 바람과 조류 등에도 안정적으로 지탱할 기초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지반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밀한 지반 분석을 통해 침하나 전도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 효율성과 유지관리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국내 서남해 연안은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지반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필요한 기술과 장비 부족으로 외국에 의존해 외화 유출과 기술 종속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 기반 구축과, 30GW 기준 약 1조 1000억 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지반조사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유의파고 2m 이하 환경에서도 안정적 조사 기술 ▲물리탐사·현장시험·실내시험 통합분석 기술 ▲지반정보 통합관리 방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표신항에 해상풍력 지반조사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전주기 관리체계와 국제 표준 기반의 고품질 인종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프랜차이즈 기업과 전북 활용 프리미엄 신메뉴 4종 출시

양념김밥과 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연간 56t 전북 소비 촉진

전남도는 29일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인 '양념김밥'과 전북을 활용한 신메뉴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북을 재료로 한 외식산업 메뉴 개발이 전북 소비 기반 확대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념김밥이 출시 예정인 전북을 활용한 메뉴는 전북계란말이김밥·전북비빔밥·전북계살볶음밥·전북

물졸면 4종이다. 전남산 전북만을 사용하며, 소비자 선호에 맞춰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 메뉴를 개발했다.

이번 메뉴 개발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남도 세계 김밥 페스티벌'에서 양념김밥과 전남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양념김밥은 전국 250여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

며, 미국에도 분식장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다. 이번 신메뉴 개발 및 출시로 연간 56t의 전북 소비가 추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북외에도 전남의 다양한 수산물을 재료로 한 가공품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전북의 건강함과 영양을 담아 김밥과 분식으로 어우러진 신메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북 대중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5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모집

5월 9일까지...1003명에 장학금 11억 4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오는 5월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을 모집한다.

장학생 선정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초·중·고·대학생이다. 특별경력 장학금은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하다.

선발 분야는 전남인재 장학금, 전남정착 장학금, 특별지정 장학금 총 3개의 분야 15종이며, 장학생 1003명에게 장학금 11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인재 장학금은 상반기에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남도 장학금, 사회적 배려 계층을 지원하는 기회균등 장학금 등 총 6종으로, 399명을 지

원한다.

전남 정착 장학금은 상반기에 전남도로 취업을 준비 중인 도내 대학교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장려 장학금 170명을 지원한다.

특별지정 장학금은 지역 및 수혜자가 특정한 장학금으로 434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5월 9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혹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막는다...광주시, 공인중개사 교육 진행

사기 유형·예상 사례 중심 교육

광주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의 좌절을 막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30일 오후 4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지역 모범중개사사무소 대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 임원 등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 주택정책과 전세사기 대응 TF팀과 토지정보과가 협업체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개인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모범중개사사무소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준비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 분석, 전세 계약 때 유의사항과 실무 체크리스트, 지

체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이다.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교육자료를 제공해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감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지역사회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전문 파트너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월 가정의 달 특집

초특가 할인

기간 : 5월 1일 ~ 5월 10일